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본선 25편 선정

극영화 18편 · 실험영화 3편 다큐 · 애니메이션 각각 2편

심사위원들 "거주·노인·장애 소재 작품들이 많이 나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중 하나인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될 본선 진출작과 지역공모 선정작이 확정됐다.
지난 13일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단편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25편과 지역 영화 5편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올해 한국단편경쟁 부문에는 지난해보다 14편 증가한 총 1040편이 출품돼 역대 최대 편수를 기록했다. 지역공모 역시 지난해 24편에서 올해 47편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극영화가 18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 영화는 3편, 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각 2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올해 한국단편경쟁 출품작은 고른 완성도와 다양한 주제 의식으로 풍성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개인의 일상에서 사회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보여주는 영화들 속에서 올해는 거주, 노인,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영화들이 많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영화 속 인물들을 섬세하게 바라본 작품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끌었다"고 평했다.

이와 함께 올해 높은 관심을 증명한 지역공모에서는 단편 '이별유예'(감독 조혜영), '죽육기'(감독 김해옥), '탑차'(감독 유준상), '형태'(감독 김휘중)와 장편 'UFO 스케치'(감독 김진욱) 등 모두 5편이 선정됐다.
문석 프로그래머는 심사평을 통해 "이번 지역공모에 출품된 40편의 단편영화 중 상당수는 흥미와 긴장감을 자아내는 작품들이 많았다"라며 "(지역공모 작품들이) 일반 경쟁 작품보다 수준이 낮지 않을까, 지역이라는 명분만 강조하는 작품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단편경쟁 본선 진출작은 올해 영화제에서 상영되며, 이 기간 대상과 작품상, 심사위원특별상 등 1000만원 규모의 시상도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천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빛'

무주군 설천면 출신 목지공예 명인 박주용 작가가 13일 무주군에 "천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빛(2015년)"이라는 작품(지름 120cm)을 기증했다.
박주용 작가(52)는 "혼을 담아 제작한 작품을 고향에 기증하게 돼 흐뭇한 마음"이라며 "최복미술관을 통해 많은 분들과 만났으면 좋겠고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목지공예를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목지공예 명인 박주용 작가, 무주군에 작품 기증

"천년을 기다려온 통일의 빛(2015년)"은 조각조각의 무늬목을 붙여서 만든 목지공예 작품으로 빛처럼 퍼져 나오는 무늬와 옷칠로 완성된 빛깔, 그리고 나무의 결을 살린 재질과 형태가 특별한 느낌을 자아낸다.
박주용 작가는 2007년 임주 옷칠공예 입선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한국예술문화재

단 총연합회로부터 목지공예 명인으로 선정됐으며 같은 해 목지공예 부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목지공예 분야를 개척한 박주용 작가는 목지공예와 목지화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소품을 목지공예로 재창조해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파 지도자가 당선돼야" 설교한 목사 12명 고발된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다음달 4·15 총선을 앞두고 설교와 강의를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한 교회 목사들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평화나무는 서울 마포구 병커1교회에서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교회가 공명선거의 모범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다음주 중 교회 목사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고발 대상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중준 목사,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 사랑길교회 정동수 목사, 양산 은누리교회 허남길 목사 등 12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중준 목사 등 12명의 목사를 "불법적 선거 개입 혐의로 받는 12명의 목사를 통해 심정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행한 메시지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가슴 아프지만, 목사들은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 목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로 판정된 부분까지 사실인 양 교인들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병커1교회에서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 김중준 목사,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장 이성화 목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 등 12명의 목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게 가르쳤고, 교인들은 이를 설교에 동화됐다"며 "사회의 모범이 되고 빛이 돼야 할 교회가 민주주의의 후퇴의 견인차가 됐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김중준 목사와 이성화 목사는 자신을 명의의 공문과 유인물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남느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느냐 심각한 기로에 놓여있다. 4·15 총선에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이은재 목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은 김일성이 만든 당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면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교회 내 불법 선거운동 고발 나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공존의 인간학' 제3집 발간

이라며 "4·15 총선에서 절대로 민주당이 공산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평화나무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린 다른 목사들은 설교와 강연 등에서 "4·15 총선에는 확고한 우파 성향의 정치 지도자가 당선돼 그동안 무너진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출구 전략이 생겼다. 그게 무슨 당이지? 왜 못하냐 선거법에 걸릴까봐, 알죠?" 등의 발언을 하며 전광훈 목사가 지지하는 기독교자유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평화나무는 지난해 12월 말 발족한 공명선거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교회와 개신교 단체들이 주관하는 예배·집회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고 그 결과 특정 정당과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반대를 요구하는 설교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19~20일 중 이 목사들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전광훈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차 고발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 제3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존의 인간학'은 전주대 인문학플러스(HK+) 연구단이 연 2회 발간하는 인문학 학술지로 지난해 창간호와 제2집에 이어 세 번째다.
제3집에는 '탈유교사회의 문화현상과 공동체'라는 주제의 기획논문 3편과 일반논문 4편, 총 7편의 논문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됐다.
기획논문으로는 상하이대학 문화연구학과 왕샤오밍 교수의 '소인배의 시대 - 오늘날 중국인의 정신과 문화 상황'과 안동대 국어문학과 신효립 교수의 '웅고집전에서 재현된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도덕경계와 공존의 의미', 그리고 중국 연변대학교 사회학과 허명철 교수의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이 포함됐다.
일반논문에는 전북대 사학과 하우봉 명예교수의 '18세기 초엽 일본 소라이문학과 조선 통신사의 교류·다자이 다이의 한관청화고(를 중심으로)'와 일본 國立歴史民俗博物館 아라키 가즈노리 교수의 '조일 강화 교섭 과정과 정담사', 일본 고쿠시칸대 유은경 교수의 '나카라이 도시의 계립정화 춘향전을 통해서 본 조선 인식', 마지막으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성수 교수의 '1910년대 한의회의 전회-전통에서 회통으로의 변화'가 실렸다. /정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